

사람의 나이로 19살이면 아직 미성년자 취급을 받아 웬만한 잘못에 대해선 사회로부터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는 반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이제 성년을 목전에 둔 「월간 양계」 역시 창간 19돌을 맞이하여 축복과 함께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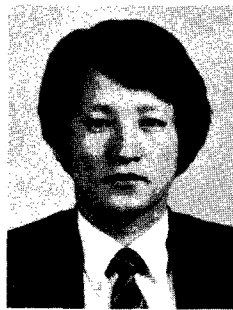
또한 최근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쏟아져 나온 각종 간행물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여쩔 수 없는 사실이다. 협회지로서의 「월간 양계」는 지난 19년간 별무리없이 잘 커왔으나 이제 비슷한 종류의 간행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탈바꿈하듯 제2의 탄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며 「월간 양계」를 아끼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바라는 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내용중 양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취재나 탐방보다는 한 농장을 탐방하더라도 그야말로 그 농장의 모든 것을 깊이있고 충실하게 다뤄줌으로써 살아있는 글을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 순수한 정기구독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피가 좀 줄더라도 광고를 줄이고 부수를 늘려서 모든 양계인을 비롯한 많은 축산인들이 끌고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광고수입이 줄면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 필진 다양화에 주력해야.....



박규덕

동방유량(주)
수원공장 기술과 대리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내용을 보다 알차게 꾸며 유료구독자수를 늘림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화시대를 앞서가는 잡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뚜렷한 맥이 있는 잡지로 탈바꿈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종류의 잡지들이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발간된다면 흥미위주의 오락잡지가 아닌 이상 독자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전면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현재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협회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줌으로써 특색있는 월간지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세째, 협회지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필진을 다양화하여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켜 신선함과 함께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양계협회 회원들, 그들이 바로 숨겨진 필진으로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오랜 양계경험을 통해 상당한 경지에 이른 양계인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을 「월간 양계」의 필자로 끌어들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지면에 옮긴다면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양계전문지가 되리라고 믿는다.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월간 양계」가 더욱 알차고 충실하게 변해가는 자랑스런 모습을 기대해 보며 전국 양계인들의 진실한 벗이 되길 바란다. **양계**